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2022. 6. 29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 -

북유럽, 중남미, 한국 비교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기존 행복연구

- 2000년대 들어 사회과학과 정책분야에서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happiness turn')
- 이론적 논의, 행복지수를 개발, 행복수준 계량하여 나라별로 비교
- 물질적 기반이 주관적 만족도로 가는 통로가 핵심
 - 개인해석의 심리적 역동성 (순응, 회피, 저항, 불만)

행복연구 맥락화, 과정화

- 행복연구의 맥락화
 - 구체적 맥락 (자연환경과 사회구조)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보는 질적연구가 필요
- 과정화
 - 행복은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함 (Smith & Reid, 2018).

공간적 역량 (Spatial capability)

-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역량 이론 (capability theory) (2008)
 -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역량으로 규정
 - 가용할 기회가 있는 처지
 - 인간 개인과 사회의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
- 공간적 역량 (Spatial capability) (Shin, 2011; Kim and Shin, 2018)
 - 역량이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공간적 측면을 발전
 - 주거와 이동 선택의 자유

연구방법: 심층인터뷰

- 1년 차 (2019):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2-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 포함, 코펜하겐에서 6명, 오슬로에서 5명
- 2년 차 (2020):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 8명, 코스타리카 산호세 - 8명과 심층 인터뷰 줌(Zoom)으로 심층인터뷰
- 3년 차 (2021):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30대 청년층과 6-70대 노년층을 각각 9명씩 심층 인터뷰

공통점 - 역량의 중요성

-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중요성
- 거주 선택의 자유 - 집값, 치안
- 이동의 자유 - COVID-19, 한국의 경우 군대, 여성
- 대다수 피면담자들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을 무척 선호

이동 자유의 제한: 코로나 상황

- 멕시코 피면담자 산티아고는 가장 불행한 시기가 언제였냐는 연 구진의 질문에 ‘지금’ (인터뷰 당시, 2020년 8월)이라고 답
 -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제가 불행한 이유는 첫째, 격리되어 타인과의 접촉이 부족한 것이에요. 매일 개를 산책 시키러 가서 공원에서 다른 견주들 만나서 손을 흔드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둘째로 COVID-19로 인해 선택의 폭이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래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 장래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인터뷰)
-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된 측면 존재

공통점 - 시대의 변화

- 청년세대 - 경쟁 증가
- 요즘 코스타리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일하는 이유
 - 코스타리카는 교육도 무료이고 사회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요. 비록 약간의 장벽이 있을 수 있어도 누군가 열심히 일하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개인의 성과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지요. 전 그렇게 점점 일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걱정이에요.(2020년 8월 20일 인터뷰)

공통점 - 행복할 수 있는 기제 발전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스스로의 행복을 구성하는 기제를 발전

복유럽

- 시스템에 대한 신뢰

-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주로 만족하거든요.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게 큰 이유예요. (60대, 코펜하겐)

- 자부심, 책임감, 부채의식

- 덴마크와 같이 좋은 사회에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에요. 불우하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이 내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내 부모님은 자신들은 가지지 못했던 인생의 자유를 저에게 주었어요.... 만약 실업자가 된다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난 그걸 못 견딜 거예요. (20대 석사과정생, 코펜하겐)

북유럽

- 동호회 활동의 중요성
- 넓고 얇은 사회적 관계
 - 운동, 카드게임 등을 위한 거예요. 멤버십을 위해 돈을 내구요... 그들이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활동 위주예요. 자기가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고 시간이 되면 가서 활동을 하고 맘에 안들면 탈퇴하면 되지요. 나간다고 붙잡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순응하기보다는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문화
 - 덴마크에서는 주로 의견을 소리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다른 덴마크 사람들 혹은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하기도 해요.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문화거든요. 이런 의견개진의 자유가 장점이지만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거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20대, 국제기구)

중남미

- 좋은 날씨, 싸고 신선한 음식
- 타협적 태도
- 안전에 대한 염려
 - 저는 돈을 좀 더 주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사는 것을 택하겠어요. 멕시코는 불행히도 강도와 같은 사건이 많아요. 심지어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요. 그런데 안전한 동네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해요 (2020년 8월 4일 인터뷰)
- 코스타리카 - 군대 폐지, 무료 교육, 의료
 - 코스타리카에서 경찰을 보거나 정치인을 만나도 권위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친절하고 인간적입니다. 사람들이 겁먹는 것도 없구요. 그런 권위적인 태도가 없는 것은 군대가 없는 사실과 관련 있을 거예요. (2020년 8월 13일 인터뷰)
- 핵심집단 (core group)의 중요성

행복을 만드는 방식 학습

- 60대 멕시코 여성 모니카: 감정을 분리하기
 - 멕시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0년 8월 31일 인터뷰)
- 80대 멕시코 여성인 마리아: 경계 확립
 - 제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나의 경계를 확실하게 확립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타인과 소통하는 법도요. 전 그래서 안정감과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랐어요. (2020년 8월 24일 인터뷰)
- 60대 코스타리카 남성 알베르토: 달리기
 -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혼자만 알고 해결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저는 8남매 중 막내여서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식이었어요. 늘 부모님의 관심이 나보다 형들에게 훨씬 더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2020년 8월 21일)

한국

-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상황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
- 비슷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강제에 의해 군대에 있는 때는 불행한 경험으로 나타나고 자신이 선택한 재수를 할 때는 행복하고 보람있던 경험
-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하고 인정받은 경험이 행복에서 중요
- 과정으로서의 행복과 사건의 양면성
 -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황에 들어서서 불행했지만 그 결과로 노력하여 성취를 하면 큰 행복을 주었다. 한국인 피 면담자들의 행복과 불행에 모두 경쟁, 성취와 연관이 있었다.

한국

- 부모와 자녀의 의무감 – 가족은 행복과 불행에서 둘 다 언급
- 삶의 진도를 내는 것에 대한 중압감
- 외로움, 공허함
- 불행한 상황에 대해 순응과 저항 모두 다소 소극적

결론 및 함의

- 사회 맥락, 시간에 따른 행복의 역동성 보는 것이 중요
- 행복을 학습, 형성하는 삶의 과정
- 평등한 물질적 기반 중요
- 경쟁, 가족의 의미
- 직장 외 상관없는 사회적 관계망
-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존중

참고문헌

- Easterlin, RA, Angelescu McVey, L, Switek, M, Sawangfa, O, Smith Zweig, J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 22463-22468.
- Elster, J. (1983). *Sour grap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 (2013) The ends and means of sustainabilit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4(1): 6-20.
- Shin, H. (2011). Spatial capability for understanding gendered mobility for Korean Christian immigrant women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48(11), 2355-2373.
- Smith, T. S., & Reid, L. (2018). Which 'being' in wellbeing? Ontology, wellness and the geographies of happi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6), 807-829.